

# 몸을 위한 생명의 체험과 성장과 사역

(금요일—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 부활 안에 있기 위해 타고난 조성을 처리함

성경: 고전 2:14, 빌 3:3-11, 요 12:24-26

### I.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는 것은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면이다 — 고전 2:14, 빌 3:3-9.

A.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서 우리의 타고난 존재가 무력하고 아무 자격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 고후 3:5-6.

1. 우리는 다른 일들에서는 충분한 자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타고난 존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서 아무런 자격이나 역량이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 엡 2:1, 5상, 4:17-18, 고전 2:14, 램 17:9, 롬 6:6, 7:24, 8:7-8, 마 16:24.
2.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서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조금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거절하고 우리의 영을 훈련하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 빌 3:3, 롬 8:4.
3. 주님의 회복 안에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위한 여지가 없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몸의 일부로서, 타고난 것은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거절할 것이다 — 고전 12:12-13.
4.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타고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하며, 그런 후에야 우리는 함께 연결될 수 있다. 오직 우리의 타고난 존재가 파쇄된 후에만 우리는 건축될 수 있다 — 영한동변찬송가 837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603장) 6-7절.

B. ‘타고난 조성’이라는 표현에서 ‘조성’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능력의 총체를 의미한다 — 살전 5:23.

1. 타고난 조성은 혼적인 사람의 현저한 특징이며, 옛사람을 살아 나타내는 두드러진 표현이다 — 고전 2:14, 롬 6:6.
2. 타고난 조성은 옛사람을 살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사람의 능력과 역량과 지혜와 영리함과 책략들과 기술들과 관련된다. 야곱은 타고난 조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이다 — 롬 6:6, 창 28:20-22.
3. 하나님은 단지 천성적으로 역량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다. 타고난 능력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장애물이 된다 — 창 32:22-32.

C. 우리는 타고난 조성이 처리되는 체험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1.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롬 6:6.
2. 우리는 타고난 조성이 옛사람의 매우 강한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3.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조성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타고난 조성에 적용해야 한다.
  - a.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 우리의 타고난 모든 능력은 죽음의 표시가 찍힐 것이고 점차적으로 시들어질 것이다 — 마 16:24.

- b.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큰 영적 전환점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고난 능력과 역량을 만지시는 곳인 우리의 브누엘이 될 수도 있다 — 창 32:22-32.
- 4.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는 체험을 성령의 교통 안에서 적용하며, 또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발견될 때 성령께서 그 모든 방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집행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적용한다 — 고후 13:14, 롬 8:13.

**II. 우리의 타고난 조성이 처리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활 안에 있게 될 것이다 — 빌 3:3-11.**

- A. 우리의 타고난 조성의 모든 방면은 타고난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타고난 상태로 있는 것의 반대는 부활 안에 있는 것이다 — 빌 3:11.
- B. 우리가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과 역량과 지혜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유용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요 12:24-26.
- C. 우리의 타고난 능력은 주님께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 안으로 이끌려야 한다 — 빌 3:3-11.
  - 1. 타고난 능력은 이기적이고, 타고난 능력의 책략들과 방법들은 자아를 위한다. 부활한 능력은 과쇄된 것이며, 자아를 위하지 않고, 자아의 요소도 갖지 않는다.
  - 2. 타고난 능력은 육체와 기질의 요소들로 섞여 있다. 부활한 능력에는 육체가 없다.
  - 3. 타고난 능력은 교활함과 술책을 수반한다. 부활한 능력은 책략을 꾸미지 않는다.
  - 4. 타고난 능력은 교만을 포함하고 자기 스스로 역량이 있다고 느끼게 하며, 그 결과 자랑하고 우월감을 갖는다. 부활한 능력은 본질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 5. 타고난 능력은 성령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극히 대담하다. 부활한 능력은 그 영의 통제를 받으며 자신의 원함대로 감히 행하지 못한다.
  - 6. 타고난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 부활한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
  - 7. 타고난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한다. 부활한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따라서 감히 행동하지 않는다.
- D. 하나님은 우리를 종결하시고 끝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그 결과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 고후 1:9.
- E.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목표이자 목적지이어야 한다 — 빌 3:11.
- F.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납달리’ 지파로 비밀스럽게 옮겨져 영적인 ‘납달리 사람들’이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역사의 한 부분은 비밀스러워야 하며, 이 비밀스런 부분에서 우리는 납달리 지파 안으로 옮겨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게 된다 — 대하 2:14, 왕상 7:14, 창 49:21, 시 22편 제목.

- G.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역량과 능력과 미덕들이 십자가로 이끌려 죽게 한다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 롬 8:13, 요 12:24.
1. 그런 다음 부활 안에서 우리의 역량과 능력과 미덕들은 타고난 생명 안에 있었을 때보다 몇 배나 더 많아질 것이다.
  2. 역량과 능력과 미덕들이 여전히 우리의 것이지만, 죽음과 매장을 통과한 후 이제는 부활 안에 있다.
    - a. 이것은 우리의 역량과 능력과 미덕들이 부활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 빌 3:11.
    - b. 우리는 계속 존재하지만, 우리의 타고난 역량과 능력과 미덕들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 — 요 12:25-26.
- H. 부활의 실재는 그 영이고,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그러므로 부활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 고전 15:45하, 마 28:19, 고후 13:14.
1. 우리의 타고난 역량과 능력과 미덕들은 죽음과 매장을 통해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부터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져야 한다.
  2. 자신 안에서 우리는 천연적이지만, 우리 자신으로부터 부활이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부활 안으로 들어간다 — 요 11:25, 고후 1:9.
- I.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라는 ‘씨’를 땅 속에 심는 것은 결코 손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씨를 심을 때 일시적으로 그것을 잃어버리지만, 결국에는 부활 안에서 수확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요 12:24-26.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타고난 힘과 능력을 거절함

우리는 봉사를 할 때 모든 일을 육체 되심의 원칙 안에서 해야 한다. 육체 되심의 원칙은 신성이 인성 안으로 놓여지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신성한 요소가 충만한 그분의 인성 안에서 모든 일을 하셨다. 그분은 어떤 것도 타고난 힘이나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요 5:19).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셨고, 그분은 그분의 모든 행위와 말과 일에서 아버지와 하나이셨다(14:10, 10:30).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은 전적으로 신성한 요소이신 아버지와 함께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힘과 능력이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신성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힘과 능력을 거절하는 공과를 배워야 하며, 모든 성도가 이 공과를 배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타고난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함

모세와 베드로는 둘 다 비교적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자신의 타고난 힘과 능력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주님을 위해 행동하고 어떤 봉사를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주님께 기도하고 양망할 필요가 없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거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느낀

다. 이것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 경우이다. 그가 그의 동족 히브리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 그는 이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했다(출 2:11-12). 오늘날의 기독교 안의 슬픈 상황은 사람들이 대개 그들의 타고난 힘과 능력에 의해 그들의 자신의 생각에 따라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주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위해 복을 주시기만을 기도할지 모른다. 그들은 주님의 뜻을 위해 그다지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타고난 힘과 능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 타고난 힘과 능력은 그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그 자신의 갈망을 만족시킴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힘과 능력 안에서 일할 때, 그 목적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며, 그 동기는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본다면, 이것이 우리의 자아를 죽일 것이고 동기를 순수하게 할 것이다. 실로 우리는 주님의 일에서 우리의 갈망을 갖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영광, 곧 우리의 자랑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주님께 속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갈망과 목적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자신의 갈망과 우리의 영광을 위한 우리 자신의 목적은 우리의 타고난 힘과 능력과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의 갈망과 영광을 위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유죄 판결하고 거절해야 한다.

### 타고난 힘과 능력은 십자가로 처리되어야 함

타고난 힘과 능력은 십자가로 처리되어야 한다. 죄를 이기고 처리하는 것은 이것만큼 어렵지는 않다. 우리의 타고난 힘과 능력을 이기는 것은 중요하고 주관적인 공과이다. 그것은 죄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욱 주관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타고난 힘과 타고난 능력은 우리의 자아, 곧 우리의 타고난 조성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타고난 힘과 능력은 우리의 자아의 체현이다. 이것이 자아를 부인한 후에도, 타고난 힘과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로 그것들을 처리하는 공과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다.

### 타고난 힘과 능력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활 안에서 유용하게 됨

타고난 힘과 능력이 십자가로 처리를 받는다면 그것들은 유용하게 된다. 십자가로 처리를 받은 후에 그것들은 부활 안에 있게 된다. 몇몇 형제들은 그들의 타고난 언변으로 말하지만, 다른 어떤 형제들은 십자가로 처리를 받은 언변으로 말한다. 이것이 부활 안에 있는 언변이다. 체험이 부족한 몇몇 사람들은 타고난 언변과 부활 안에 있는 언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물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만일 당신이 체험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쉽게 분별된다. 체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처리를 받지 않은 타고난 힘과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처리를 통해 부활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어떤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 안으로 넣어졌다. 심지어 어떤 신성한 요소가 우리의 언변 안으로 넣어졌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십자가로 처리를 받은 언변을 가져야 한다. 십자가는 항상 십자가의 처리를 받는 사람 안으로 신성한 요소를 넣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끈다. 만일 당신의 언변이 십자가로 결코 처리를 받아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신성한 것이 전혀 없는 타고난 언변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언변이 처리를 받았다면 그러한 종류의 언변은 부활 안에 있으며 신성한 요소로 충만하다. 타고난 언변에는 하나님이 없으나 부활 안에 있는 ‘처리를 받은’ 언변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처리를 받은 후에 우리의 힘과 능력은 주님을 섬기도록 부활 안에서 유용하게 된다. *(봉사에 대한 기본 공과, 278-282쪽)*

### 타고난 조성과 부활 생명의 차이점

우리는 인간의 능력과 소질과 지혜와 영리함에 속한 것들을 타고난 조성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서 온 것이지 하나님의 부활 생명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것들이다.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파쇄됨을 거쳐 부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타고난 조성과 부활 생명의 차이점은 실로 엄청나다.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과 역량과 지혜와 영리함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으로 부활하여, 이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하고 쓸모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타고난 조성의 처리에 대하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소질을 원하지 않으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념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러한 사람의 능력과 소질이 필요하다.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무나 돌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없듯이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도 하나님과 협력할 수 없다. 영리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한층 더 쓸모가 없다. 유능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할 뿐 아니라 무능한 사람은 한층 더 무익하다. 사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 편에서도 쓸모가 없다. 수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모든 이들은 이 세상에서 유능한 이들이었다. 우리는 모세가 능력과 예지와 지혜와 영리함을 겸비한 유능한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시는 데 쓰실 수 있었다. 더욱이 그로 말미암아 구약의 가장 중요한 책인 모세오경이 쓰였다. 우리는 또한 바울 역시 대단한 학식을 가졌고 사고가 풍부한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신약의 책 가운데 깊고 높은 진리를 쓸 수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들은 어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들이었으며, 결코 평범한 이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영적인 봉사의 가장 큰 원칙은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으셔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시다. 어떠한 일을 하는 법을 모르는 이들과 어떠한 일에 무능하거나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 자신은 힘을 들여 협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곤 한다. 이러한 믿음

은 헛된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사람도 역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사람이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도 스스로는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과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으셔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을 때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협력의 정도에 따라서 일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고 유능하게 되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타고난 방식으로 유능한 사람을 쓰실 수 없다. 타고난 재능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장애가 된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부서지고 죽음을 통과하며 부활해야 한다. 타고난 능력은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약해서 제련되지 않은 원광석처럼 쓰기에 적합하지 못하며 쉽게 깨진다. 부활한 능력은 제련된 강철과 같아서 단단하나 유연성이 있어서 이용하기에 적합하고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도 쓰실 수 없고, 유능하지만 파쇄되지 않은 사람도 쓰실 수 없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유용한 이들은 그들의 재능이 깨뜨려진 유능한 이들이다. 우리가 만일 수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쓰신 이들을 살펴본다면 그들 모두가 매우 유능하고, 흔적인 능력이 풍부하며, 안목이 있고, 총명하며 또한 하나님에 의해 깨뜨려진 이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가장 뚜렷한 예는 우리가 이미 언급한 야곱이다. 나면서부터 그는 유능하고 수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에 의해 부서지고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재능과 수완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우리는 그가 전혀 혼돈되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 그는 매우 명석하고 예지가 있는 사람이었다. 더욱이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명한 축복(창 49장)은 성경에 있는 위대한 예언이다. 이 말씀은 진실로 위대하고 놀랍다. 만일 야곱이 둔감하고 우둔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또 한편으로 야곱이 만일 자신의 타고난 생각과 사고와 능력만을 의지했다면, 역시 그러한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타고난 생각과 사고와 타고난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 부활하고 영적인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그런 위대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일한 원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도 적용된다. 하나님은 지극히 현명하시고 총명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요구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지혜와 총명만 의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필요한 것은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분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가 이러한 것들 위에 죽음의 표시를 찍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을 따라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의지하여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조성이 없으며, 자기가 계획한 대로는 더욱 행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훈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구한다. 오직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 분명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타고난 능력과 재능이 처리를 받은 후에 무익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된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파쇄되고 죽음에 넘기는 것은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다. 실지적인 십자가의 죽음은 항상 부활을 가져온다. 나사렛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겪으셨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

다. 창세기 35장 이후로 야곱은 완전히 처리를 받고 끝났지만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처리는 항상 부활에 이르게 한다. 사람의 재능이 십자가에 의해 더 처리될수록, 그 사람은 더 유능해진다. 사람의 총명이 십자가에 의해 더 처리를 받을수록 그 사람은 더 총명해진다. 더욱이 이러한 재능과 총명은 부활을 거친 것이다.

이러므로 한편으로 우리는 사람을 격려하여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하며, 그들의 생각과 통찰력을 훈련하게 하고, 사람으로서 처신하는 법, 사물을 다루는 법,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재능뿐 아니라 교육도 무익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깨뜨러지고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방면은 분명히 서로가 모순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실지적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타고난 능력과 부활한 능력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본래 가진 능력과 파쇄당한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일곱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는 먼저 타고난 능력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모든 타고난 능력은 이기적이며 그 모든 책략과 방법은 자기를 위한 것이다. 둘째, 타고난 모든 능력은 육체와 성질의 요소가 섞여 있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화를 내게 된다. 셋째, 타고난 모든 능력은 교활함과 술책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타고난 능력은 자만을 포함하고, 자신이 재능이 있다고 느끼게 하여 그 결과 자랑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 다섯째, 타고난 모든 능력은 성령의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며 어떤 일이든지 극히 대담하게 해 나간다. 여섯째, 타고난 모든 능력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의에 따라서 행한다. 일곱째, 타고난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오직 자아만을 의지한다.

부활한 능력은 정반대이다. 첫째, 파쇄되고 부활한 모든 능력은 자아를 위하지 않으며 어떤 자아의 요소도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부활한 모든 능력은 육체가 전혀 없다. 셋째, 부활한 능력은 결코 책략을 쓰지 않는다. 넷째, 부활한 능력은 교만하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다섯째, 부활한 능력은 그 영의 통제를 받으며 자신의 원함을 따라서 감히 행하지 않는다. 여섯째, 부활한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 일곱째, 부활한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자신을 따라서 감히 행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타고난 능력과 부활한 능력의 차이점에 대하여 분명해졌으므로 우리 자신의 체험 안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능력을 행사할 때 그 일이 자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자의로 결정하여 개별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비평과 반대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묘안을 짜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성령에 의해 통제를 받는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갈망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가 아니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여 결과를 바라는가? 내 자신의 수단에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만일 우리가 자신을 엄격하게 시험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과 봉사에서 많은 영역이 아직도 타고난 조성과 옛 창조에 속해 있어서 부활의 열매를 신출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출이다. *(생명의 체험(하), 107-113쪽)*